

‘인간 지능’ 경이로운 세계로 떠나는 지적 모험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지능의 역사

호세 안토니오 마리나 지음·윤승진 옮김

“사피엔스는 그들을 둘러싼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기이한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인류의 역사는 대부분 이러한 가상의 이야기들을 과학 이론으로 대체해 가는 과정이었다. 신화에서 과학으로, 상상에서 이성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인간 지능을 길들이는 힘든 여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해하고 설명을 구했던 인류의 열망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근원적 동력이 아니었는가.”(본문 중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아니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지능은 무엇일까?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는 어떻게 펼쳐질까?

인간과 인간의 지능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인간 지능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세계이자 우주이므로.



다음은 인간과 지능을 아우르는 정확한 정의가 아닐까 싶다. ‘현실과 비현실을 동시에 살며 실질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매우 이상한 창조물’ 스페인의 지성 호세 안토니오 마리나의 견해다. 그의 책 ‘지능의 역사’는 인류의 기원부터 인공지능까지를 다룬다. 저자는 사피엔스의 본질을 상징체계(문화) 창조능력으로 규정한다. 현실과 비현실 세계를 동시에 사는 이 특이한 종을 가리켜 ‘영적 동물’이라고 부른다.

책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인기를 능가한 스페인 인문 베스트셀러다. 인공지능 기술이 불러올 포스트휴머니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 인공지능의 토대가 되는 지능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다면 사피엔스의 신비는 무엇에서 연유할까. 사물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능성’을 발견하는 능력에 있다. 일테면 이런 것이다. 길가에 튀기는 돌을 단순한 돌맹이가 아닌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조각 형상을 찾거나 건축물을 상상한다. 저자는 사물로부터 얻어지는 표상을 다루는 능력을, 다시 말해 상징적 사고를 사피엔스가 동물과 다른 큰 차이라고 설명한다.

책의 구성은 사투 이색적이다. 미래에서 온 ‘우스벡’이라는 이가 인류의 지능이라는 주제의 미스터리를 밝히는 여정이다. 인간지능의 창조물인 언어와 수, 그림을 토대로 인포그래픽, 마인드맵 등을



인간은 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도구를 사용하고 종교를 숭상하며,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생성지능을 가지게 됐다.

〈라이팅하우스 제공〉

적절히 가미했다.

사피엔스가 유목에서 경작으로 전환한 시기가 첫 번째 축이다. 우스벡은 확장된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본다. 더 잘 살고 안락하고자 하는 욕망이 정착으로 이어졌다. 큰 촌락에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로 이어졌다. 사피엔스는 더 큰 집단을 이루고 ‘모르는 사람들과 협동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 중요해졌다.

두 번째 축은 종교를 매개로 인간 내면으로 회귀한 시대다. ‘위대한 영적 혁명’은 종교와 정치, 경제 영역에서 자성에 관한 관심이 일어났다. 물론 종교

는 사피엔스가 하나의 종으로 역사에 등장했을 때부터 함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영적인 대상 외에도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과 관련돼 있다.

세 번째 축은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생성 지능을 보유한 점이다. 우스벡이 감지한 것은 ‘자기만의 선택기준을 만드는 것은 창조자의 위대한 창조물’이라는 점이다. 창조자는 그것을 개인화하는 존재다. 이러한 능력은 선택 기준의 품질을 결정하는 종교나 도덕, 정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마지막 축은 영구히 개선된 인류, 다시 말해 포스

트휴먼의 시대. 흥미롭게도 책은 그 초입에서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른 무엇보다 저자는 인공지능을 발명한 인간이 인공지능을 배끼려 하는 위험한 현실을 목도한다.

“우리는 인간의 지능이 어디로 갈 것인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중략) 우리는 생물학적 종과 강력한 기술의 결합 그리고 그 윤리에 대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라이팅하우스·1만6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광조 평전

신병주 지음

조광조(1482-1519)는 무오사화로 유배됐던 사림파의 핵심 인물 김경필을 스승으로 삼아 학문에 정진했다. 29세인 1510년(중종 5년) 과거 초시에 장원으로 합격했고 34세 1515년(중종 10년)에는 알성시에서 2등으로 급제한다.

이후 언론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사간원 정언에 임명됐다. 화려하게 중앙 정계에 등장한 조광조는 본격적으로 성리학자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정치에 나섰다. 군주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만 민보정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연을 활성화했다.

조선시대 전문가이자 ‘역사저널 그날’의 신병주 교수가 펴낸 ‘조광조 평전’은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 조광조의 삶과 사상을 담았다. 조광조는 가슴에 성리학자 이상을 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매진했지만 그의 이상은 당대 사회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꿈은 좌절됐고 역사는 그를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로 기억한다. 개혁의 정점은 정국공신 개정이었다. 중종반정에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정국공신에 책봉된 사람 가운데 공이 없는데도 인맥으로 공신이 된 이가 많았다. 조광조는 공이 없는 이들의 훈장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종이 개국공신 개정을 선언한 지 불과 4일 뒤 상황이 급변전한다. 중종은 조광조 세력을 전격적으로 체포한다. 방랑을 만들어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며 자기들만 요직을 차지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역사는 조광조를 실패한 개혁가로 두지 않았다. 그가 추구했던 개혁정치를 인정하고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비록 조광조의 개혁이 당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가 보여준 결기와 개혁 열망은 오늘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한겨레출판·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트리플 버블

한상완·조병학 지음

“2020년은 우리에게 시간 왜곡이었다. 팬데믹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의 세월을 정지화면처럼 멈추게 했고 이것이 끝나는 순간 팽팽한 화살 시위에 걸려있는 화살처럼 쏠살같은 속도로 지난 시간을 만회하려 할 것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됐다. 그러나 온라인 비즈니스는 호황을 누렸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 활황으로 자산가치도 늘어 수도권 외에도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넘는 자산가들이 늘었다.

그렇다면 향후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 ‘2023년이 21세기 최악의 붕괴로 기록되는 해’라고 전망하는 이들이 있다. 한상완 2.1지속가능연구소 소장 조병학 파이낸셜뉴스의 교육기업 에프앤이노에듀 부대표의 진단이다. 두 사람이 펴낸 ‘트리플 버블’은 2023년은 ‘트리플 버블의 암흑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저자들은 2022년은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진단한다. 이로 인해 2020-2021년 2년간 갇혀 살았던 사람들의 욕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 넘쳐나던 유행성이 자산과 원자재 가격을 들쭉서 원가 부담 요인도 폭발 직전까지 다다른다. 내년 말께가 되면 두 압력이 부딪히며 물가가 폭발하게 된다는 예상이다.

저자들은 시장붕괴를 부동산시장에서 찾는다. 저신용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주식시장도 폭락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기업은 구조조정에 나선다. 부동산-금융-실물 복합불황의 쓰나미가 덮치는 상황에 직면한다. 다시 말해 코로나 팬데믹이 왜곡시킨 시간은 사상 최악 버블을 만들어 사상 최악 세계 공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다.

〈인사이트 앤·1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인의 맛

정명섭 지음

대한제국 시절 고종이 즐겨 마시던 커피가 오늘날 한국인의 ‘습관’이 된 이유는 전기밥솥이 가장마다 보급됐기 때문이다. 또, 마니아들 사이에서 정통 논쟁이 심심찮게 벌어지는 냉면 육수의 맛은 평양에서 한국전쟁을 통해 한강 이남까지 퍼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화학조미료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 감칠맛이 스며든 결과다. 분식집의 대표 메뉴인 김밥은 보름음식인 김 북삼인지 아니면 일본에서 건너온 노리마키인지 그 기원이 불분명하다.

짜장면, 설렁탕, 김밥, 카레, 커피, 조미료, 돈까스, 팔불출, 단팥빵까지 한국사를 바꾼 아홉 가지 음식을 다룬 책이 출간됐다. ‘한국인의 맛’은 문화사, 생활사적 성격을 갖는 각 음식이 한반도로 유입돼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과정을 풀어낸 다.

소설가이자 바리스타인 저자 정명섭은 ‘명탐정의 탄생’, ‘무너진 아파트의 아이들’, ‘38년, 왜란과 호란 사이’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펴냈고 현재 한국 미스터리작가모임과 무경계 작가단에서 활동 중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저자가 2017년 쓴 ‘별세계 사건부’의 주인공 ‘경성 설록’ 류경호 기자가 이 책에도 등장한다는 점이다. 류 기사는 인천항의 음침한 뒷골목부터 군산의 일본인 거리까지 조선 전역을 뛰어다니면서 한국인의 입맛이 바뀌어가는 백 년의 역사를 탐문하는데, 책에는 이 과정이 흥미진진한 추리소설처럼 담겼다.

저자는 “우리가 전통이라고 알고 있는 입맛은 사실 근대 이후에 길들여진 결과다”며 “역사를 상징하는 음식 문화는 언제 비롯되었느냐는 기원이 아니라 지금 누가 누리고 있는지에 따라 정체성이 규정된다”고 전한다.

〈추수밭·1만6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밤벌레의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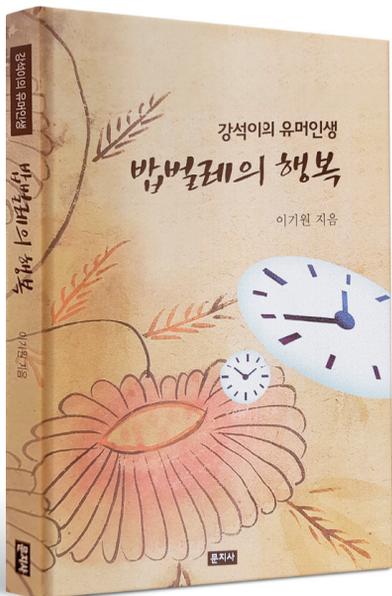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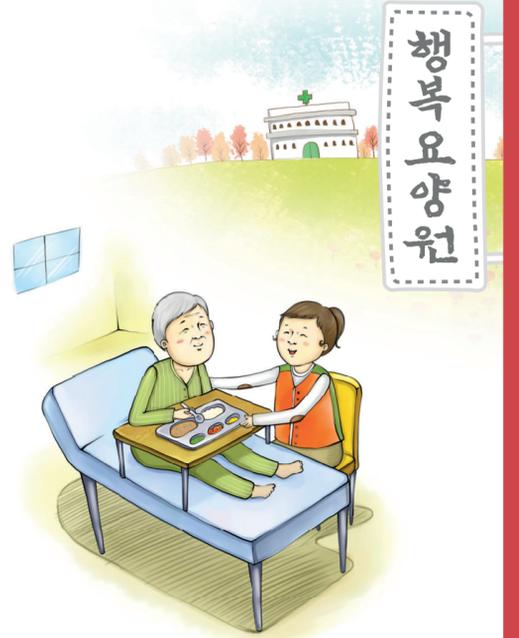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정가 12,000원



행복요양원

서점판매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남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응진서적, 흥지사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